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땀 광주·전남 산업계 위협하다

수출입 타격

전남 석유화학 수출 ‘리 비중’ 45.4%...원료 수입 의존도 높아 광주 자동차 부품 비중 높지 않지만 수출 급등세 꺾일까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광주·전남지역 주력 산업계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해 광주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수출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남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사태 장기화시 관련 업계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전남 소재 기업의 러시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4억4000만 달러로, 석유 화학군 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절반 수준인 45.4%를 차지하고 있다. 합성수지도 전체 수출의 36.8%, 선박류도 28.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대 러시아 수출 기업은 석유화학을 비롯해 선박, 기계, 농수산·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99곳이다.

전남의 지난해 우크라이나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1위 수출 품목인 합성수지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 기호식품, 철강판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점에서 수출 급등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대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은 농수산·가공식품, 화학공업,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18곳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액은 규모도 작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지만, 러시아는 전남 전체 수입의 11.7%를 차지하는 등 제3위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 수입 차질이 예상된다.

전남은 석유화학업계가 원료의 상당부분을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어 당분간 에너지 수입 차질이 우려되고,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자동차와 부품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대러시아 수출은 지난해 말 기준 3억 9000만 달러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다.

현대·기아차가 GM 러시아 공장을 재정비한 뒤 본격 생산 체비에 나서면서 지난해 광주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4만4742.8%나 급증했지만, 향후 러시아 수출 차질시 급등세가 꺾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광주의 대러시아 수출 기업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화학, 식품, 가전 등으로 모두 69곳이다.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은 수출의 절반 상당을 차지하는 타이어 등 고무제품 수출 감소가 전경이 진정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은 자동차부품, 화학, 전자, 식품, 가전 등 18곳이다.

다만 수입에서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사태로 일시적인 수입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보다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아 수입선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도 전체 수입액이 2만 1000달러에 불과하고 수요 수입품도 2020년까지 실적이 없었던 기계류와 잡화류 등에 집중돼 있어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물가 충격

전남 지난달 소비자물가 4%·광주 3.5% 상승...공업제품 5%대·유가 두 자릿수 인상

지난달 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4%대로 오르는 등 지역 물가가 반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충격은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광주 3.5%·전남 4.0% 상승했다.

올해 1월 상승률은 광주 3.4%·전남 3.8%로, 연 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달 반등했다.

지난달 지역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광주 5.2%·전남 5.9%로, 두 지역 모두 5% 선을 넘겼다.

광주·전남 보험서비스료가 각각 13.4% 인상이나 등 개인서비스도 광주 3.8%·전남 4.2%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LPG 등을 포함한 석유류 가격은 전년보다 광주 19.8%·전남 20.2%나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17.4%·전남 16.2% 오르면서, 전달 상승률(광주 13.9%·전남 13.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중순 광주·전남 주유소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1당 1700원을 넘었으며, 7일 중에 1800원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전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4일 기준 115.7달러를 기록하며 120달러까지 넘보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1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당장 이번 달부터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국제 에너지가격과 곡물가격 상승세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재부 측은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식용 옥수수 17만과 사료용 옥수수 26만의 국내 반입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사료용 옥수수는 대체 국 제입찰로 우크라이나 물량보다 많은 32만5000t을 추가 확보했다. 사료용 밀은 7월초, 사료용 옥수수는 6월초까지 사용물량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녀 돌보고 10시 출근 지난 4일 광주은행 송죽동(왼쪽 두번째) 은행장과 직원 가족들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 113명을 포함 5년 동안 총 428명의 직원들이 제도를 이용했다. <광주은행 제공>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동해안 산불’ 현장 방문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신임 사장이 지난 5일 경북 울진군 북면 석호항 어촌뉴딜사업 피해현장을 찾으며 취임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화재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농어촌공사 시설인 부구저수지와 석호항 어촌뉴딜사업 현장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구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와 방수문, 선로가 녹고, 석호항 어촌뉴딜사업 해안산책로 데크 일부 구간이 전소됐다.

농어촌공사는 4일 경북지역본부 재해대책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피해상황 등을 감시하고 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습취입보, 수산취입보, 부구저수지 소방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울진군에 긴급 구조 물품을 전했다.

한전KPS 김흥연 사장은 5일 나주 본사를 포함한 한울원전과 삼척과 동해사업장, 원주와 대구전

력지사에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해 발령하고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화재 현장인 동해, 울진의 주요 송전선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한전KPS는 전력망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위기대응반 130여명을 투입했다.

삼척, 동해, 한울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사업장에서는 소방호스를 미리 연결해 발전소 인근 산불 번짐에 대비한 실수 준비를 하고 있다. 한전 KPS 설비담당부서는 비상 발전 준비를 마쳤다.

또 동해안 산불의 영향권에 있는 13개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최대 2000만원

‘전남 방문의 해’ 맞아 행사 유치 총력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에서 마이스 행사를 하는 단체, 기관 등에 인센티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지속한 코로나 여파에서도 중·소규모 학회, 협회 등의 행사 유치가 집중해온 전남도는 올해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마이스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일 이상의 회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하는 학회, 협회, 기업, 기관 등이다. 행사 규모와 유형에 따라 2000만원 한도에서 1인당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전체 참석자의 최소 10% 이상이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오프라인 참석자는 규모에 따라 1만 원에서 1만5000원을 지원하며, 온라인 참석자는 1인당 동일하게 5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로 휴양과 치유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도가 지정한 22개 시·군 총 67개소의 휴 마이스 시설 이용 시 추가로 인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휴 마이스 시설은 전남도가 집중 육성하는 중·소규모 특화 시설이다.

전남도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학회, 협회, 회의 기획사(PCO) 등을 대상으로 마이스 설명회를 열고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마이스 행사 유치로 대규모 관광객 유입 및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3월 혜택은?

2000원~1만원 등 다양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이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6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다양한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3월에는 위메프오 첫 구매 선착순 500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쿠폰, 매주 토요일 10% 무제한 페이백, 매주 일요일 2000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앞서 진흥원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출시 9개월을 맞은 현재 가맹점은 6900여개로, 올해 들어 배달 4만건 이상의 주문,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액 대비 민간배달앱과 비교한 중개수수료 절감분이 7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실익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위메프오 가맹점에게는 배달주문 1건당 1000원, 최대 50



만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와 지역상권 활력을 위한 광주공공배달앱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 등록은 홈페이지(<http://광주공공배달.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출 증기 무역진흥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11일까지 접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1일까지 지역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을 접수받겠다고 6일 밝혔다.

KITA 무역진흥자금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나뉘어 발급,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자금,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융자는 최대 3억원까지 최저 연금리 2.0%로 시행되며, 2년 거치 후 3년차에 4회 분할 상환하

게 된다. 융자신청은 무역협회 KITA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호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팀장은 “무역진흥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급자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11일 인사노무 관리 실무교육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 중점 내용의 강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임금 및 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휴가 및 휴일(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휴가 등) ▲직장 내 괴롭힘 개정사항 ▲중대재해처

별법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실무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의 이론 및 실무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7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는 서울상공회의소 노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희 노무사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과정은 1·2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2편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 내용을 중점으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보 고객 도우미제 시행

대출 보증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이 7일부터 ‘고객 헬퍼제’(도우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광주신보의 6개 지점(동·서·남·북·광산구·송정지점)에서 배치된 ‘고객 헬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신보는 고객의 상담 문의와 요청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재단의 보증 지원뿐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고 고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0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3	18	24	27	29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61,199,344	12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9,076,175	84
3	5개 숫자일치					1,473,338	2,79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3,067
5	3개 숫자일치					5,000	2,349,017